공단 정전사고 해결책 "전무"

보상문제 · 사후조치 전혀없어 … 잇따른 사고로 생산성 위협

지난 5월9일 전남 여천시 여천석유화학공단에 불어닥친 7분간의 정전사고로 인해 공단내 많은 석유화학공장들이 크나큰 피해를 보았으나 이에대한 보상문제는 물론 사후조치 등 또다른 정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전무, 그에따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 5월9일의 정전사고는 한전에서 공급하는 발전기에 트러블이 생기면서 주파수가 흔들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한 피해액은 무려 70억~80억원에 달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그러나 이같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서는 초반 한때 제소의사를 나타내는 등 대책마련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으나 최근들어 유야무야되는 등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각 기업은 물론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등도 대책마련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 관련 유도품업계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사고의 피해현황을 보면, 에틸렌 및 프로필렌 등 전공정이 가동중단된 호남석유화학이 직접비용 15억원을 포함 40억~50억원의 가장 큰 손실을 입었고 대림산업 10억, LG석유화학 5억 등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잠정집계는 공정중단에 따른 직접비용만을 계산한 것으로 그외 공장보수비 등을 감안하면 손실액은 이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손실액에도 불구하고 한전측과의 불합리한 계약조건에 막혀 손실액 보상요구는 물론 어떠한 요구조건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기업들은 정부 및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등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또한 여의치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점사업자인 한전측을 상대로 한 통상산업부 및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의 중재역할이 쉽지 않을 뿐더러 불합리한 계약조건이 바뀌지않는 한 정전사고에 따른 모든 손실은 해당기업들이 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전사고가 1년에 한두차례 이상 발생하며, 그동안 여러차례의 정전사고로 손실을 입었음에도 한전측의 어떠한 보상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의 한 관계자는『업계와 한전측과의 계약조건이 불평등하는 등 계약자체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관련기업들도 손실액이 밝혀지기를 꺼리는 등 다소 폐쇄적이어서 이의 제기를 위한 기조를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시인하고 있다.

한편, 각 관련기업들은 유틸리티공장 등 열병합발전소를 가동, 자가발전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정전사고에 따른 보험적인 성격에 그칠뿐 완벽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몇몇 기업은 보험회사와 Insurance(보험)계약을 맺어 손실액을 최소화하는 등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한계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관련기업들은 전기시스템을 병렬로 연결하는등 한전측의 전기질 향상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응급처방식 조치에 만족해야 할 형편이다.

<화학저널 1995/7/3>